

D-14 4·9 총선 이슈

③ DJ 영향력 이번에도 미칠까

동교동계 출마 3곳 당락이 판가름

호남의 총선 정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차 진원지는 무안·신안과 목포 선거구.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DJ의 복심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기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여기에 '리틀 DJ'로 불렸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18대 총선 불출마 결심을 뒤집고 26일 광주 북구 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당 후보와 동교동계 무소속 후보들이 정면 대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총선 결과는 DJ 정치적 영향력 유지 여부를 가늠하는 물론 호남 정치권의 세력 판도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동교동계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생존 여부가 결정지어지게 된다.

민주당 공천에서 김홍업 의원, 박

박지원·김홍업·한화갑 무소속 출마 지지

적통 부여한 통합민주당과 일시 대립 불가피

지원 전 비서실장, 설훈 전 의원, 정군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부분 고배를 마신데다 비례대표 후보에서도 국민의 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 총선거확산 부단장이 포함될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멸했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동교동계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3곳의 지역구 가운데 최소한 2곳에서 승리해야 DJ가 일정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DJ는 최근 최경환 비서관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을 배제할 책임도 있지만 억울하게 조작된 일로 희생된 사

람의 한을 풀어 줄 책임도 있다"며 박선숙과 김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사실상 지지했다.

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25일 총선 출마를 보고 하자 DJ는 상대 후보와 지역 특성 등을 묻고 열심히 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동교동계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에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평화세력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인 DJ에 참여한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홍업, 박지원 후보 등이 당선되면 통합민주당 복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무소속 돌풍의 진원지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동교동계의 부활은 총선 이후 당권 경쟁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지역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망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관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DJ와의 충돌은 피한다는 원칙 아래 관세에 따라 당차원의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DJ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지역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무소속 동교동계 후보를 지지하면서 마지막까지 DJ를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교체 명령을 기다릴지 결과는 15일 뒤면 나오게 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지병문(왼쪽)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18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광주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등록 첫날 광주·전남 73명 출사표

제18대 4·9 총선 등록 첫날인 25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각각 31명과 42명 등 모두 7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8명의 선량을 뽑는 광주지역은 3.9대1, 12명을 뽑는 전남지역은 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6일 등록이 마감돼 광주·전남 지역 총선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 박상천 공동대표가 고희·보성, 김효석 원내대표는 담양·곡성·구례, 지병문 의원은 광주 남구, 박주선 전 의원은 광주 동구,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광주 서구, 이용섭 전 건교부 장관은 광산구를 선거구에 각각 등록했다.

또 한나라당 김태욱 전 광주케이블TV 방송국

대표가 광주 동구, 정용화 당 정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이 광주 서구갑, 고기원 전 제3보병사단장이 무안·신안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목포, 김홍업 의원이 무안·신안,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이 광주 남구,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이 광산구갑 등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했다.

선거구별로는 무안·신안에 6명, 광주 북구갑과 장흥·강진·영암에 5명이 각각 출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령 후보는 광양의 한나라당 김광영(70) 후보며 최연소 후보는 광주 서구의 평화통일가정당의 문상필(33) 후보다. /박지경기자 jkpark@

목포 박 27.5% 정 26.9% 이 15.6%

(지원)

(영식)

(상열)

광주일보·KBC·결합 여론조사

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광주·전남의 선거판세가 민주당 대 무소속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광주 북구갑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데다, 이영호 의원과 유인화 전 의원이 장흥·강진·영암에 무소속 출마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소속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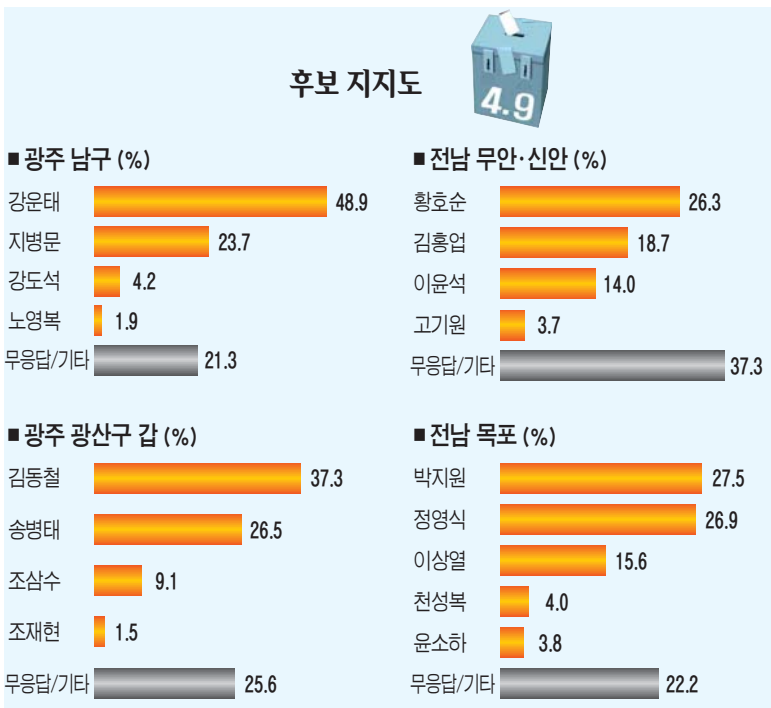
◇광주 남구=강운태 전 장관과 지병문 의원의 리턴매치가 벌어지는 남구에선 현재 강 전 장관이 48.9%의 지지율로 지 의원(23.7%)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 집중하느라 본선준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지율에 많은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 조직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다. 탄탄한 조직기반과 인지도를 갖춘 강 전 장관 역시 우세한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 이벤트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원직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관심을 모았던 강도석 후보는 4.2%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광주 광산구갑=현역의원인 민주당 공천경쟁을 통과한 김동철 의원(37.3%)이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26.5%)을 10.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송 전 구청장은 당초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천을 신청했으나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공천심사에 불복,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표발을 다져왔다. 민주당총괄광주전남본부장을 지낸 민노당의 조삼수 후보는 9.1%의 지지율을 기록,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포=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무소속으로 출마,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비서실장(27.5%)이 민주당 공천 프리미엄을 확보한 정영식 전 행정부 차관(26.9%)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현역으로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 출마를 단행한 이상열 의원(15.6%)도 크게 뒤지지 않고 있어 남은 선거기간 동안 치열한 3파전이 예고되어 있다.

지난 24일 하루 동안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 표본은 인구비례에 기초해 무작위로 선정됐다. 각 선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선정된 여론조사 대상자는 광주 남구 504명, 광산구갑 510명, 목포 509명, 무안·신안 505명 등 총 2천28명이다. 표본 오차는 선거구별로 95% 신뢰수준에서 ±4.3~4.4% P이며, 응답률은 평균 19.6%다.



무안·신안 황호순 26.3% 김홍업 18.7%

광주 남구 강운태 48.9% 지병문 23.7%

광주 광산구 김동철 37.3% 송병태 26.5%

◇무안·신안=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 관심 지역구로 떠오른 곳이다.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뒤늦게 민주당 공천권을 따낸 황호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26.3%)이 7.6%포인트 차이로 김 의원(18.7%)을 앞서고 있지만 DJ변수가 상존해 있는 만큼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이윤석 전 전남도의회 의장(14.0%)도 무시하지 못할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막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당 지지도=광주 남구와 광산구갑은 응답자의 58.7%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목포는 54.1%,

무안·신안은 51.3%가 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를 표시한 응답자는 남구 5.9%, 광산구갑 4.1%, 목포 5.0%에 그쳤다. 막판 변수가 될 무응답자 비율은 남구 25.2%, 광산구갑 18.3%였다. 또 목포는 24.7%, 무안·신안은 30.5%씩을 각각 기록했다.

◇공약 인지도=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대 다수인 90% 이상이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알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절반 정도가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해,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아닌 바람과 인물위주 선거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시작은 늘 혼자였지만
오늘의 세상은 나와 함께 한다

THE HIGH-END
All New Accord

VCM기술의 4-UTE6엔진

Honda Care